

제 2 장: 19 세기

1800

6월, 7월 - 미국, 레드와 그래스퍼 강(Red and Gasper Revers, America) (제임스 맥그래디(James McGready))

1800년 켄터키(Kentucky)에 위치한 어느 한 장로교회의 제임스 맥그래디(James McGready)목사님은 매달 첫째주 월요일에 기도회로 전념하였고, 그의 성도들에게는 매주 토요일 해질녘과 매주 일요일 아침 해뜰 무렵에 그 자신을 위해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여름날, 부흥이 켄터키(Kentucky)를 강타했습니다.

맥그래디(McGready)는 미국 남서쪽에 위치한 로간(Logan)시골에 있는 무디강(Muddy River), 레드강(Red River), 그리고 그래스퍼강(Gasper River)쪽에 3개의 작은 믿음의 공동체를 섬기고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은 미국 전역에서 모여든 범죄자들로 재판과 처벌을 피해 도피한 도망자들이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살인자, 말 도둑, 고속도로 강도, 그리고 사기꾼들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그 지역은 ‘악당들의 은신처’라는 별명까지 붙어 있었습니다.

1800년 6월에 맥그래디(McGready)의 3개의 공동체 가운데 4~5백 명 가량의 성도들이 5명의 목회자들과 ‘캠프집회(Camp Meeting)’를 위해 모였습니다. 그 모임의 마지막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위에 강권적으로 임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에 엎드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간구하면서 울부짖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에 대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해 6월이 다 지나갈 무렵 맥그래디(McGready)와 다른 목회자들은 즉시 이와 비슷한 야외모임을 그래스퍼강(Gasper River)근처에 준비했습니다. 8천 명의 엄청난 사람들이 마차로 100마일(miles)이 넘는 거리를 달려왔습니다.

맥그래디(McGready)는 저녁집회에 어느 장로교회 목사님이 불이 활활 타오르는 햇불을 들고 수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집회 전체를 사로 잡아 흔드는 것 같았다. 설교가 끝날 무렵에는 곤궁에 빠져 있는 어려운 처지의 사람들의 울음소리들이 목사님의 설교보다 더 크게 들리기 시작했다. 모인 군중이 해산한 후에도 다수의 무리들은 그 감격스러운 집회를 잊지 못해 장엄한 행렬을 이루어 그 모임은 계속 확대되었다. 아무도 집에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았고, 심지어는 배고픔과 졸음을 느끼는 사람들도 보이지 않았다. 오직 영원한 것에 대한 것만이 그들의 최대 관심사였다. 여기에서 영적인 깨어남과 회심하는 일이 거기 모인 군중들 사이에서 일어났고, 그 중 일부는 매우 놀랄만한 것들이었다. (크리스찬 역사 1989, 25)

이러한 개척지의 부흥들은 미국 부흥운동의 새로운 강조부분이 되었습니다. 1802년에는 옥외의 텐트와 마차 안에서 진행되는 집회들을 ‘캠프집회’라

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집회는 개척한 정착지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야외나 아니면 큰 텐트안에서 진행된 집회들은 복음 전도자들의 활동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땅의 먼지를 가라 앉히거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 길게 늘어난 톱밥은 회개한 죄인들이 집회장 앞으로 걸어 나오는 작은 길목이 되었고 종종 눈물이나 고뇌의 울음들은 그들의 진실한 회심을 더욱 간절하게 표현하였습니다.

1801

8월 미국, 캔인 리지(Cane Ridge) (바톤 스톤; Barton Stone)

1800년의 부흥들로 감명받은 장로교회 바톤 스톤(Barton Stone)목사님은 그의 목회지역인 렉싱턴(Lexington)북동쪽에 위치한 캔인 리지(Cane Ridge)에서 비슷한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약 12,500명의 거대한 무리가 오하이오(Ohio)와 테네스시(Tennessee)사람들을 포함해 125대 이상의 마차를 몰고 와 참석했습니다. 그 당시 렉싱턴(Lexington)에서 가장 큰 캔터키(Kentucky)에도 시민이 1,800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집회에서 설교하는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목사님들과 순회 기수들은 그 넓은 집회 장소를 순회하면서 죄인들은 반드시 주님께로 돌아와야 된다는 회심의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후에 감리교 순회 기수가 된 제임스 피니(James Finley)는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소리는 나이아가라(Niagara)폭포가 내는 엄청난 소리 같았다. 인간으로 만들어진 거대한 바다가 마치 폭풍을 휘저어 나가는 것 같았다. 나는 일곱 명의 목사님들이 각각 다른 위치인 나무그루터기 위에서 아니면 마차 안에서 아니면 나무 위에서 동시에 한 목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다..... 내가 한 통나무 위에 올라 섰을 때 나는 인간으로 요동치는 파도를 더욱 선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내 앞에 전개되었던 그 광경을 제대로 표현하기가 쉽지 않다. 나는 천 개의 총구가 그들을 향해 견주어진 것같이 한번에 500명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고, 곧 이어 천국문을 여는 듯한 비명과 고향소리가 이어지는 것을 들었다. (프래트니(Pratney) 1994, 104).

모세 호그(Moses Hoge)목사님은 같은 집회에 대해 이렇게 말을 덧붙였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무관심이 떠나고 울음과 전율을 느끼는 경련현상이 일어났다...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이 나의 마음에 강한 감명을 주었다. 하나님의 긍휼을 위해 고향을 지르며 울부짖는 죄인들은 손에 든 모든 것을 땅에 내려놓고 몸부림 치기 시작했고, 죄인들을 위해 울부 짖으며 기도하던 목회지도자들도 기쁨의 환희 속으로 !.... 일반적으로 그 일은 하나님이 직접 역사한 것이었다는데 아무런 반대가 없었다. 집회에 모인 사람들을 위한 것이 특별히 불신자들에게는 놀랄만한 경험이었다. 나는 그들의 회심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합리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다. (크리스천 역사 1989, 26)

19세기 초에 일어난 부흥은 미국 개척자들에게만 충격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시골 마을들과 특별히 대학들에게도 영향을 끼쳤습니다. 영국에서 그랬던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처럼 부흥이 널리 퍼진 것은 선교사들이 불타는 사명으로 많은 초신자들을 잘 지도하고 훈련시킨 결과였습니다.

그 두번째 영적 대각성운동은 현대선교사들과 그들이 속한 단체들을 탄

생시켰습니다. 많은 성서공회들은 노예제도 폐지를 장려했고, 다른 많은 사회개혁들을 시행했습니다. 유럽의 나폴레옹 전쟁(1803-1815)과 1812년에 있었던 미국과 영국과의 전쟁(1812-1815)은 부흥의 열정을 가로 막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울부 짖으며 간구하게 되었고 그것으로 부흥운동이 더욱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찰스 피니(Charles Finney)가 그 대표적인 인물로 손 꼽혀집니다.

1821

10월10일 - 미국, 아담스 (Adams) (찰스 피니(Charles Finney))

찰스 피니(Charles Finney)는 19세기에 일어난 부흥운동을 통해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열렬한 스포츠맨이면서도 젊은 변호사였던 그는 1821년 10월 10일 수요일 밤에 회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으로부터 권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날 아침 성령은 그의 방법대로 찰스 피니(Charles Finney)를 뉘우치게 했습니다. 피니(Finney)는 뉴욕(New York)주에 있는 작은 도시 아담스(Adams) 근처에 있는 숲 속에서 아침기도를 위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사로 잡혔습니다. 전심으로 변화된 그는 오후에 그의 변호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료인 라이트(Wright)와 함께 새 사무실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날 저녁 그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 날 밤을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그의 자서전에 남겼습니다:

저녁에 우리는 책들과 가구들을 정리했다. 그리고 그 날 저녁을 홀로 보내기 위해 나는 열린 화롯가에 활활 타는 불을 지폈다. 어둠이 몰려올 때쯤 동료 라이트(Wright)은 모든 것이 잘 정리된 듯이 나에게 작별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내가 정문까지 그를 배웅하고 문을 닫고 돌아서는 순간 나는 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나의 모든 느낌들이 북받쳐 흘러 넘치는 것 같았고, 내 마음의 속에 잠재하던 생각은 오직 '내 영혼을 하나님께 내려 놓기를 원하는 것'뿐이었다. 기도를 하기 위해 사무실 뒤에 있는 방으로 뛰어 들어간 나의 심정은 무엇으로도 표현 할 수 없었다.

이 뒷방에는 화로도 전등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밝은 방으로 나타났다. 내가 그 방을 들어가 문을 닫았을 때 나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눈 앞에서 만난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내가 다른 보통사람을 보듯이 느껴졌다. 비록 그는 아무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발 앞에서 나를 내려다 보는 것 같았다. 그것은 예수님이 진실로 내 앞에서 있는 것 같았고 나는 그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영혼을 그에게 드러내는 것 같았다. 나는 어린아이같이 울음을 터뜨렸고 내가 실망하고 고민해 오던 것들을 고백하게 되었다. 나의 눈물이 그의 발을 씻긴 듯한 느낌을 받았지만, 내가 그를 감동시켰다는 특별한 감명은 받지 못했다.

나는 이 느낌을 한동안 간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내 심정은 주님과 만남에서 내가 나누었던 이야기를 기억하느라 많은 혼란에 쌓였다. 내 마음이 어느정도 안정되었을 때 나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그리고 내가 지퍼놓았던 화롯가의 장작불이 거의 다 타가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내가 돌아와 장작불 옆에 앉을 쯤에 나는 전능한 성령세례를 받았다. 이것은 내가 성령에 대해 아무 생각이 없을 때, 또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나를 위해서 있는지에 대해서도 느껴 본적이 없었을 때, 그리고 세상의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들어 본적이 없었을 때 성령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나의 육체와 영혼을 통해 임하셨다. 나는 전류가 내 몸속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진실로 그것은 내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는 맑고 투명한 사랑의 파도처럼 밀려왔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호흡 같았다. 나는 엄청난 바람이 나에게 불어 온 것같이 분명하게 그것을 기억할 수 있었다.

그 어떤 말로도 나의 마음 속에 퍼진 그 놀라운 사랑을 표현할 수 없었다. 나는 그 기쁨과 사랑에 감격해 크게 울었다. 나는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흘러 나오는 형용할 수 없는 그 감격에 사무쳐 있었다. 이런 느낌은 내가 주님께 “만약 이런 순간들이 계속 된다면 나는 아마 죽을 것 같아요. 더 이상은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죽음에 대한 공포는 없어요, 주님.” 이라고 하는 순간까지 계속 감돌았습니다. (위셀(Wessel) 1977, 20-22)

그날 밤에 피니(Finney)가 불려서 그의 사무실에 온 교회 성가대원인 그의 친구는 전에 무신론자였던 피니(Finney)가 크게 울음을 터뜨리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그와 잠시도 이야기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젊은 친구는 돌아가서 평상시 엄숙하고 잘 웃지 않는 장로님 한 분을 모시고 돌아 왔습니다. 피니(Finney)가 진술 했습니다:

그가 들어 왔을 때 나는 아직까지도 내 친구가 장로님을 부르러 갔을 때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장로님이 어찌된 사연인지를 물어서 나는 응답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어떤 충고의 말 대신에 그 장로님은 돌발적인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다. 장로님이 그렇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흘러 나오는 웃음을 터뜨린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었다. (위셀(Wessel) 1977, 22)

다음날 아침에 피니(Finney)는 마음 속에서 흘러 넘치는 사랑과 구원의 위력있는 새로움에 회심하게 되었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직원들에게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또, 같은 날 아침에 어느 교회집사님 한 분이 재판을 10시에 시작하게 요청하러 찾아 왔을 때 피니(Finney)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의 복음을 변론해야 함으로 당신을 변호 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다른 변호사를 찾아야 할 것 같다는 말을 했습니다. 깜짝 놀란 집사님은 후에 하나님에게 더욱 진지해졌고, 개인적으로 그의 일을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피니(Finney)는 그의 사무실에서 일어난 자신의 삶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나는 곧 사무실에서 회심한 몇몇의 영혼들과 앞을 향해 기운차게 나왔다. 나는 내가 전에 느껴 보지 못한 하나님이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는 것과 내가 그것을 즉시 시작해야 한다는 강한 영감을 받았다...

나는 그날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고 믿는다. 그러나 나는 내가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눴고 누가 그 후에 주님께로 돌아 오게 되었는지는 잘 모른다...

그 날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해 무엇을 하셨기에 좋은 흥미거리가 그 골짜기 마을에 만들어 졌다. 어떤 사람들은 한가지를 생각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른 어떤 것을 생각했다. 아무런 계획된 약속이 없던 저녁에 나는 집회와 기도 모임들을 위해 그 장소로 가고 있는 사람들을 유심히 살펴 보았다...

나도 그들을 쫓아 혼자 그곳에 갔다. 목사님이 거기에 있었고 그 옆에 마을의 지도자급 사람들이 있었다. 아무도 그 모임을 개최할 준비가 되어있게 보이지 않았지만 모인 그 집은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망설이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나 “이 종교적인 모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이어가 내가 경험했고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 확신있게 간증하였다.....

내가 전에 젊은이들 가운데 한 지도자였기 때문에 나는 곧 그들을 위해 모임을 만들었고, 거기에 모든 젊은이들이 참석했다.... 그들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급속도로 변화되기 시작했고 그 일은 그들 가운데 마지막 한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올 때까지 계속 되었다.

그 일은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퍼져 나갔고 마을 안뿐 아니라 마을 밖으로도 확장되어 나갔다. (위셀(Wessel) 1977, 26-31).

피니(Finney)는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복음전도와 부흥을 위해 헌신하였습니다. 그는 부흥의 절정기에 가끔씩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거룩함이 집회장소의 사람들뿐 아니라 회개와 회심을 하는 군중들이 사는 사회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한 예로, 1858년부터 1859년 사이에 피니(Finney)가 부흥운동이 일어나는 보스톤(Boston)에서 일년이 넘게 말씀을 전했을 때 많은 신문 기사들은 보스톤(Boston)항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님께로 돌아 왔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가 어디를 여행하였던지 그는 찬양 인도자와 함께 다니기 보다는 그를 위해 기도할 중보기도자와 함께 여행을 하였습니다. 가끔씩 그의 동역자이며 아버지인 내쉬(Nash)가 집회에서 보이지 않을 때는 아버지는 숲 속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피니(Finney)는 호세아 10장 12절을 자주 강조하곤 했습니다: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너희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마침내 여호와께서 임하시 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그는 우리가 만약 회개와 기도로 우리의 할 바를 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가운데 하나님의 의를 보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피니(Finney)는 남녀 평등제도의 신념아래 남녀 공학제도와 인종차별을 폐지한 흑인과 백인이 함께 입학할 수 있는 오버린(Oberlin)대학을 설립하고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그의 부흥학 강의는 학문적으로 널리 이해되었고 미국과 영국에 부흥을 불러 일으키는데 영적으로 크게 공헌하였습니다.

1858

3월 - 미국, 뉴욕 (예레미아 램피어 (Jeremiah Lanphier))

다양한 부흥 운동들은 19세기 사회에 큰 영향을 주었고, 특히 1858년에 미국에서와 1859년 영국에서 일어난 부흥운동은 현저하게 눈에 띄었습니다. 특징적인 것은 이 부흥 운동이 영적인 삶의 쇠퇴기에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관심있는 크리스찬들은 열망적으로 기도했고, 하나님의 성령의 새로운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시작했습니다.

1857년 10월, 캐나다 해밀튼(Hamilton)에서 일어난 복음주의 집회들 가운데 유능하고 재능이 많은 포비 페멀(Phoebe Palmer)의 인도와 내과 의사인 남편 월터(Walter)의 도움으로 시작된 집회안에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주 설교자인 포비 (Phoebe)는 그녀의 열정적인 설교와 글들로 북아메리카와 영국에 강한 부흥이 일어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녀는 많은 영향력 있는 글을 남겼고, 특히 그 당시 거룩함으로 가장 유명하게 알려진 크리스찬 잡지인 “거룩함으로의 인도” 라는 잡지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녀의 성령세례와 능력부여에 대한 가르침은 널리 퍼져 잘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포비(Phoebe)부부는 부흥의 불씨에 바람을 부치는 폭넓은 목회를 통해 수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기도모임들은 북아메리카와 영연방 국가들에게도 확산되어 나갔습니다.

한 도시 교구전도사인 예레미아 램피어(Jeremiah Lanphier)는 1857년 9

월에 뉴욕(New York)의 플톤(Fulton)거리에서 매주 정오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10월에는 많은 사업가들이 참석하여 매일 기도모임이 성장하였습니다. 부흥의 예상은 특히 그 해 10월까지 일년 동안 불경기였던 증권시장의 붕괴와 미국 시민전쟁(1861년 - 1865년)을 어렵듯이 협박하는 먹구름들로 시작되었습니다.

1858년 초에는 플톤(Fulton)거리의 기도모임은 동시에 같은 건물의 세 장소에서 기도모임이 진행되었고 유사한 기도모임들이 시내 곳곳에서 전개될 정도로 성장하였습니다. 3월 달에는 신문 표지기사에 6천명의 뉴욕 사람들이 매일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고 다른 6천명의 사람들이 피츠버그(Pittsburgh)에서 기도모임에 참석하고 있다고 보도 되었습니다. 매일 기도모임운동은 또한 워싱턴 디시(Washington, D.C.)까지 확산되어 매일 5번씩 다른 시간에 대중들을 상대로 진행 되었습니다.

다른 도시들도 그 형태를 따라 했습니다. 그러자 곧, 상가들의 오후영업 표지판들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기도모임이 끝날 때 다시 문을 엽니다”.

5월에는 80만 명의 뉴욕시민 가운데 5만 명이 새로이 주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되었습니다. 한 신문사는 뉴잉글랜드(New England)가 부흥으로 깊이 변화되었고 몇몇의 도시에서는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을 찾아 보기가 힘들 정도로 부흥의 물결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것을 주도하던 어느 감리교 신문은 이 부흥의 특징들을 사실에 근거하여 보도했습니다: 많은 설교가 필요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전달되었고, 주님을 찾는 자들이 주님의 제단으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축복을 받았고, 분명하게 영적인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심한 자들은 거룩한 담대함을 가지게 되었고, 종교가 그 사회의 화제가 되었고, 가정예배가 강하게 시작되어 밤마다 간증 이야기가 풍부해 졌고, 모든 대화가 진지한 가운데 진행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58-1859년에는 3천만 미국 시민들 중에 100만 명이 주님을 새로이 영접하게 된 것과 적어도 기존의 100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갱신을 했다는 사실이 교회출석과 사회도덕개혁 결과를 통해 밝혀 졌습니다.

1859

3월14일 - 아일랜드, 어스터(Ulster) (제임스 맥퀼킨 (James McQuilkin))

부흥은 또한 아일랜드의 어스터(Ulster)를 포함한 대영제국을 열광시켰습니다.

같은 달인 1857년 9월에 플톤(Fulton)거리에 있는 제임스 맥퀼킨(James McQuilkin)은 켈스(Kells) 가까이 있는 어느 골짜기 마을에 위치한 학교교실에서 세 명의 젊은 아이리쉬(Irish) 청년들과 매주 기도모임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어스터(Ulster)부흥 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응답으로 1857년 12월에 처음으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1858년을 통해 셀 수 없는 많은 기도 모임들이 시작되었고 부흥은 설교자들의 공통적인 주제가 되었습니다.

1859년 3월 14일 월요일, 제임스 맥퀼킨(James McQuilkin)과 그의 기도모임 친구들은 오웬힐(Ahoghill)장로교회에서 큰 기도모임을 계획했습니다.

교회 배란다가 무너질 것을 염려해 건물을 보수할 정도로 엄청난 무리의 숫자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내리는 밖에서 한 평신도가 강하고 열정적으로 설교했고 수백 명의 사람들은 무릎을 꿇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집단 전체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자녀가 된 첫번째 사례였습니다.

1859년의 부흥사건은 백 만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아일랜드(Ireland)교회의 성도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크고 작은 집단 구분없이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켜 깊이 회개하게 하고 마지막으로는 사회의 윤리도덕을 바꿔 놓는 등 사회 곳곳에서 강하게 역사하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은 공통적인 현상으로 나타났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굴복하는 가운데 뉘우침과 회개의 시간을 가지므로 그들은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1860년에는 범죄율도 줄어들어; 몇 번이고 어스터(Ulster) 재판관들에게 범죄사건이 접수되지 않아 한번은 앤트림(Antrim)법원에서 아무 범죄사건도 경찰에 접수된 것이 없고 경찰서 구치장에도 어떤 죄수도 수감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부흥운동은 패트릭(Patrick)이 기독교를 아일랜드(Ireland)에 전해 온 후에 아일랜드(Ireland)전역에 가장 큰 영적인 충격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1860년 말에는 이 어스터(Ulster)부흥은 대중집회에서, 선례없는 숫자의 이야기들 가운데서, 엄청난 기도모임들 중에서, 증가하는 가정예배에서, 성경읽기운동에서, 번영하는 주일학교에서, 굳은 믿음 위에 바로 서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베푸는 아량이 넘쳐나는 곳에서, 나쁜 버릇을 줄이는 일에서, 범죄를 줄이는 일 등에서 항상 영적인 활력소와 삶의 변화를 주었습니다.

이 부흥의 불길은 또 다른 곳으로도 번져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859년의 같은 깊이의 뉘우침과 회심의 부흥운동이 수천 명의 웨일즈(Wales)와 스코틀랜드(Scotland)와 영국(England)사람들에게도 일어났습니다.

웨일즈(Wales)에서 일어난 부흥은 독특한 하모니 속에서 나타난 영광스러운 찬양으로 거기에 있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그로인해 전체 인구의 십 분의 일인 십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로 출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범죄율도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스코틀랜드(Scotland)와 영국(England)에서도 이 부흥이 계속되어 기도 운동들이 크게 증폭되었고, 은혜받고 은사받은 많은 복음전도자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할 수 있게 말씀으로 성령의 불을 계속 유지하였습니다.

설교의 왕자로 불리던 침례교회 목사인 찰스 호던 스펄전(Charles Haddon Spurgeon)도 이미 5년 동안 런던(London)의 수도성전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많은 성도들의 사랑가운데 목회를 해왔지만, 1859년을 신앙의 가장 높은 수위라고 고백했습니다.

1859

5월 22일 남아프리카, 나탈(Natal) (줄어스 (Zulus))

1857~1859년 사이의 부흥의 물결은 전세계 많은 나라들을 포함했습니다. 선교사들과 방문자들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이야기를 했고, 또 다

른 사람들은 부흥의 물결이 그들 나라에도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한가지 예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부흥이 네덜란드 개혁신교회(Dutch Reformed Church)에 나타나기 전에 즐어스(Zulus)와 반투(Bantu)부족들 가운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 부족 사람들은 큰 무리를 이루어 개척선교센터 앞에 모였고, 부흥의 불길은 아프리카 고유의 방식으로 그곳 주민들을 사로잡아 골짜기 마을들로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1859년 5월 22일 일요일에 하나님의 성령이 나탈(Natal)에 있는 즐어스(Zulus)의 한 교회예배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거기 모인 성도들이 밤새도록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이한 소식은 급속히 퍼져 나갔고 그리하여 부흥은 동해안에 위치한 선교센터 부족교회들에게 성령의 불을 붙였습니다. 그것은 깊은 죄의 뉘우침과 즉석에서의 회개와 회심과 그리고 특별한 기도와 활발한 복음전도를 유발시켰습니다.

1860년 4월에는 370명의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감리교, 그리고 장로교 지도자들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있는 오세스터(Worcester)에 모여 연합선교회의를 할 때 부흥에 대해 의논했습니다. 흐느껴 눈물을 흘리던 앤드류 머리 시니어(Andrew Murray Sr.)는 말하는 것을 멈추어야 했습니다. 지금 많은 책의 저자로 유명한 그의 아들 앤드류 머리 주니어(Andrew Murray Jr.)가 강권적으로 기도회를 인도했고, 거기에 모인 많은 지도자들은 그 후에 자기교회에서도 부흥이 시작되는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6월에는 부흥이 오세스터(Worcester)에 위치한 몬테그(Montague)골짜기의 메터디스트(Methodist)교회에 강하게 역사하여 그들은 매일 밤과 일주일에 세 번씩 아침에 기도모임을 가졌고, 가끔씩은 새벽 3시에도 모여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네덜란드 개혁신교회(Dutch Reformed Church) 성도들은 감리교 성도들과 함께 모여 회개와 경배와 중보기도를 통해 진정으로 죄를 뉘우침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데 동참하였습니다. 그 소식은 오세스터(Worcester)에도 알려져 그와 비슷한 기도모임들이 그 곳에서도 전개되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오세스터(Worcester)의 어느 교회에서 아프리카 여종이 찬양과 기도를 하였을때 성령님이 그 무리가운데 내려왔고 지옥 주위에 있는 번개가 접근해 흔드는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즉시 모인 사람들의 기도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그들의 목사님이었던 앤드류 머리 시니어(Andrew Murry Sr.)는 많은 거룩한 장소에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이것을 들은 목사님은 소명감으로 그곳으로 달려 갔습니다. 아무도 명령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죄 용서를 위해 하나님께 큰 소리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기도 모임은 한 주간동안 조용한 가운데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몇몇 기도 모임들은 시작되자마자 저번과 같이 영적으로 흔들리기 시작했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앞에 동시 호소를 끊이지 않게 유지 했다.” (오아(Orr 1975b, 58). 돌아오는 토요일에 앤드류 머리 시니어(Andrew Murray Sr.)목사님은 기도모임을 인도 했습니다. 설교 후 그는 기도를 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기도를 하기를 권유했습니다. 다시 번개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더니 모든 사람들이 점점 크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앤드류 머리 시니어(Andrew Murray Sr.)목사님은 사람들을 조용하게 진정시키려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영감이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워 그는 이 시끄러운 부흥기도회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회심하였고 부흥은 각지로

퍼져나가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당시 그 무리에 속해있던 50여명 성도들은 하나님 사역에 전념하게 되었고, 그 부흥은 앤드류 머리 주니어(Andrew Murray Jr.)를 하나님의 말씀선포와 그의 저서를 통해 세계적인 목회자가 되게 하였습니다.

1871

10월 - 미국, 뉴욕(New York) (디. 엘. 무디(D. L. Moody))

윌 리먼 무디(Dwight Lyman Moody)는 1855년에 회심하여 후에 미국과 영국에서 능력있는 복음전도운동을 펼쳤습니다. 그의 교회를 섬기던 두 명의 여성도들은 항상 변함없이 그가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했고 그로 인해 그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항상 증가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1871년 10월에 있었던 시카고(Chicago)화재 때 그의 집, 교회 성소 그리고 YMCA 건물들을 포함해 부서진 교아원들과 교회들을 재건하기 위해 기금을 모으러 그가 뉴욕(New York)을 방문했을때 그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갖게 되었습니다. 후에 그는 이에 대해 글을 남기기를:

나는 하나님이 성령을 나에게 부어주시기를 항상 울면서 간구했다. 그러던 어느 날, 뉴욕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인가! 그것은 어떻게 말로 표현 할 수가 없다. 나는 힘없이 그 무언가에 말려들었다. 뭐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로 무서운 경험이었다. 사도 바울도 그런 경험을 하고 난 후 14년 가까이 남에게 말하지 않았다고 한다.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났었다고 밖에 이야기 할 수 없고, 나는 그의 사랑의 손 안에 계속 머물러 있기를 간구해야 했던 그 순간의 놀라운 경험을 기억하고 있다. 나는 설교하기 시작했다. 그 일 이후의 나의 설교는 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비록 다른 새로운 진리들을 소개하지 않았지만 수백 명의 사람들이 죄를 뉘우치게 되었다. 나는 전세계를 위해 다시는 과거의 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결단은 바로 나의 삶의 균형을 유지하는 작은 먼지가 될 것이다. (무디(Moody) 1900, 149)

그가 영국을 한번 방문할때 헨니 바레이(Henny Varley)가 말한 “세계는 하나님이 그에게 전적으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 무엇을 할지를 아직 보지 않았다”는 것을 들었다. 디.엘. 무디(D. L. Moody)는 스스로가 그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디. 엘. 무디(D. L. Moody)는 미국과 영국에서 젊은이들을 회심시켰고,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기독교청년회(Y.M.C.A.)를 창설하는 일에 전념하였습니다. 침례교회의 보이드(Boyd)목사님은 디.엘. 무디(D. L. Moody)가 설교하고 있는 한 집회모임에 참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말이 “내가 런던의 있는 빅토리아 강당(Victoria Hall)의 기독교청년회(YMCA)의 모임에 갔을 때 나는 그 집회가 성령의 강한 불길 속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가 충만하여 방언과 예언의 은사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웬 일입니까? 단지 무디(Moody)가 그날 오후에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라고 말하였다. (하야트(Hyatt) 1997, 141).

하나님의 성령이 무디(Moody)의 목회를 통해 그들에게 강하게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젊은이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서 깊은 영적인 약속을 한 것입니다. 무디(Moody)의 목회로 주님의 자녀가 된 수천

명의 사람들 가운데는 캠브리지 대학의 7명의 학생들이었던 캠브리지 7인 (Cambridge Seven)과 국가대표 운동선수들과 세계적인 크리켓선수(Cricketer)인 씨티 스튜드(C.T. Studd)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결국 해외선교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